

동물치료와 대체의학

장철봉

미국 Rose Slauson Animal Hospital 원장,
국제수의침구사협회 공인수의침구사
cbchangdvm@gmail.com



동물치료와 대체의학장철봉 (수의사, 미국 rose slauson animal hospitqal, 공인(국제)수의침구사)언젠가 중국계 젊은 여성이 다른 병원에서 췌장암 진단을 받은 셰퍼드 개를 데리고 나의 병원을 찾았다. 인터넷 검색으로 수의사이고 동물침구사를 찾아 나에게 오게 됐다고 했다. 침과 한약으로 췌장암 개를 치료해 주기 위해서다.

사람의 췌장암과 마찬가지로 개의 췌장암도 췌장의 발생부위에 따라 두종류의 암(islet cell tumor, exocrinetumor)으로 분류한다. 이들은 전위성이 빠른 악성암이다. 전위성이 빠른 악성암은 수술로 암조직을 제거하고 전위를 막는 것이 우선이다. 그러기에 개 주인에게 수술과 항암치료를 먼저 권유하면서 수술 후에 침과 약초와 같은 대체치료법으로 자연치유률도와 주는 것이 현명하다고 했다. 한방을 의학의 제도권 안에서 보호받고 있는 한국과는 다르게, 미국이나 선진국가에서는 서양의학 즉 현대의학을 제외한 대부분의 치유방법을 대체의학으로 분류한다. 침술, 뜸, 한약, 카이로프랙틱, 식이요법, 동종요법, 등 수술이나 약을 사용하지 않는 치유방법이 대체의학에 속한다.

미국 수의사는 매년 수의사 연수 교육을 일정시간 이수해야 한다. 대체의학도 수의사 연수 교육과목에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지난해 부터는 한약은 제외되었다. 이유는 한약은 치료면에서 '프라스보(placebo)' 단계이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프라스보' 는 성분상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것인데도 환자가 효과를 본다고 느끼게 되는 가짜약(fake drug)을 말한다. 그동안 의료계에서는 한약은 '프라스보'다, 아니라고 많은 논란이 있었다.

이 논란을 끝내기 위해서 동물을 대상으로 임상실험을 해 보면 된다. 왜냐면 사람인 경우 치료가 된다는 느낌과 권유에 따라 복용하면 가짜약으로도 심리상 상태가 호전될 수도 있겠지만 동물은 다르다. 동물은 심리상 그런 느낌과 권유를 가질 수 없기에 가짜약으로 병을 치료할 수 없기 때문이다.

미국 수의과대학 약물 연구실에서 중국전통한약방제로 동물 임상실험을 했다. 결과로 한약으로 동물의 병이 치료됐다는 임상보고가 아직 없다. 실지로 한방약제는 약의 구성성분을 화학적으로 규명한 것이 아니고 약물의 편성인 맛과 느낌, 즉 오미와 사기로 분류해서 처방법을 구성하고 있다. 이 처방법은 사람이 약물을 대할 때 갖는 느낌으로 방제함을 말해준다. 바로 '프라스보'임을 자연스럽게 밝히는 셈이다.

대체의학의 장점은 자연치유력을 이용하는 것이고 인체에 해가 거의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대체의학을 자연요법제라고 한다. 사람을 포함한 동물의 생체는 비정상에서 정상으로 되돌아 오고자 하는 장치(system)가 있다. 균이 몸에 침입하면 몸에서 항체를 형성해서 균의 침입을 막는 것도 자연요법의 한 예이다.

대체의학은 생체가 정상으로 스스로 되돌아 올 수 있게 해주는 자연요법 보완제이지 치료제는 아니다. 미국에서 한약은 약이 아니고 식품으로 분류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그러니 정상으로 스스로 되돌아 올 수 없을 정도로 한계점을 넘어서 심각한 질병에선 자연요법제로는 효력을 기대할 수 없다. 치료제로서 치료를 하여야 한다.

애플의 스티브 잡스가 췌장암을 발견했을 때는 췌장 전체의 5% 정도 퍼진 상태였다고 한다. 당시 선불교를 믿었던 잡스는 몸에 칼을 대는 것을 싫어했고 침, 식이요법 등 대체의학을 선호한 것으로 전해졌다. 잡스의 전기에 의하면,잡스는 암조직을 제거하는 수술을 거부하고 대체요법에 처음부터 의존했다. 그러다 9개월 후 암이 췌장 전체로 전이된 상황에서 수술을 늦게 받았다. 그는 이를 후회하였다고 했다.

동서의학으로 동물을 치료하는 필자의 입장에서, 잡스도 처음부터 수술을 받고 수술후 항암제와 침치료를 병행했으면 훨씬 좋은 치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